

# 『삼국사기』 「열전」의 서술과 김부식 문장의 재조명

어강석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한국한문학 전공  
firiston@hanmail.net

- I. 머리말
- II. 김부식 산문의 평가와 「열전」의 의미
- III. 『삼국사기』 「열전」의 서술상의 특징
-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려시대는 우리의 문학사에서 한문학이 가장 전성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고려시대 한문학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남아 있는 것도 고려 후기의 것이 대부분이어서 고려 중기까지의 온전한 자료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시의 경우는 고려후기와 조선시대에 편찬된 시화집이나 시선집에 선발된 몇몇 인물의 소략한 자료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산문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여 『동문선』에 남아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 전기 산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삼국사기』이다. 『삼국사기』는 1145년(인종 23)에 50권으로 편찬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열전」의 문장은 후대의 비평가들에 의하여 전형적인 고문(古文)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찬자인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은 고려 전기 문풍의 주류를 이루었던 변려문을 배격하고 고문 창작을 시도한 인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김부식은 자를 입지(立之), 호를 뇌천(雷川)이라고 하였으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그 사람됨을 보면 살이 찌고 체구가 컸으며 낮은 검고 눈이 튀어나왔다. 문장으로 당시 이름을 떨쳤다. 송나라 사신 노윤적(路允迪)이 왔을 때 김부식이 관반(館伴)이었는데, 부사 서궁(徐兢)이 그가 글을 잘 짓고 고금의 일에 통달한 것을 보고는 그 사람됨을 높이 쳤다. 고려도경(高麗圖經)을 지을 적에 부식의 가계를 신고 또 그 형상을 그려 귀국 후 황제에게 아뢰었다. 황제는 사국(司局)에 분부하여 그를 관각해 널리 전하게 하였으니 이로써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sup>1)</sup>

이처럼 김부식은 글을 잘 짓고 고금의 일에 달통하여, 부사로 왔던 서궁이 송으로 돌아가 편찬한 『고려도경』에 그의 가계를 실었으며, 형상도 그려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만큼 김부식은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문인이었다. 그중에서도 『삼국사기』 「열전」에서 고문 창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체 문집이 남아 있지 않은 김부식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1)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州府」, 人物條. “爲人豐貌碩體, 面黑目露, 以文章名世. 宋使路允迪來, 富軾爲館伴, 其介徐兢見富軾善屬文通古今, 崇其爲人, 著高麗圖經, 載富軾世家, 又圖形以歸奏于帝, 乃詔司局, 鏤板以廣其傳, 由是名聞天下.”

한계로 인하여 저조한 편이다. 시문에 대한 연구는 시화집이나 시선집에 남아 있는 편린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sup>2)</sup>, 특히 산문의 경우에는 『삼국사기』 「열전」에 입전된 김유신(金庾信)<sup>3)</sup>, 최치원(崔致遠)<sup>4)</sup>, 온달(溫達)<sup>5)</sup>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연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 열전 서술의 고문적 특성에 대한 연구<sup>6)</sup>는 김부식의 고문체 수용 양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주목되는데, 김부식의 산문에 대하여 창강 김택영의 평가를 서술 방식과 문체를 통해 확인한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문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부식 산문에 대한 역대 비평가들의 평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삼국사기』 「열전」의 입전 인물의 성분과 서술 방식 등을 분석하여 과연 김부식의 산문으로 확정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문으로서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발견되는지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 II. 김부식 산문의 평가와 「열전」의 의미

### 1. 김부식 문장에 대한 제가의 평가

고문은 당대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 등에 의해 고문운동이 제창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그 시대의 문자인 금문(古文)에 대하여 예전의 문자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거나, 선진시대의 고문헌을 지칭하였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지칭하는 대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sup>7)</sup> 그러나 청나라 포세신(包世臣)이 “당나라 이전에는 고문이라는 말이 없었다(唐以前無古文

2) 成賢子, 「金富軾의 現實認識과 詩世界」, 『梨花語文論集』 4(1981); 金性彦, 「金富軾의 삶과 시」, 『韓國漢詩作家研究』(1995); 金聖基, 「金富軾의 儒學思想과 詩世界」, 『韓國漢詩研究』 12(2004); 卞鍾鉉, 「金富軾 漢詩 研究」, 『教育理論과 實踐』 13(2004); 李貞和, 「雷川詩에 나타난 金富軾의 문화의식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47(2009).

3) 임형택, 「『三國史記, 列傳』의 문학성: 《金分信傳》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12(1989); 정충권, 「『三國史記』 김유신조의 讀法과 脈絡」, 『韓國文學論叢』 52(2009).

4) 李鍾文, 「『三國史記』 崔致遠 列傳에 投影된 金富軾의 意識의 몇 局面」, 『어문논집』 35(1996).

5) 진재교, 「『三國史記, 列傳』 분석의 한 視覺: 溫達傳의 경우」, 『韓國漢文學研究』 19(1996).

6) 강혜선, 「『三國史記』, 列傳의 古文의 特性 연구」, 『문암어문학』 15(2002).

7) 金都鍊, 「古文의 여러 概念과 展開」, 『中國學論叢』 5(1989), 44쪽.

之翁”라고 말한 것처럼 현재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문체로서의 고문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즉, 고문이라는 말은 당대 한유 등이 육조 이래 유행하던 변려문에 대가 되는 선진양한 산문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개념이다.<sup>8)</sup> 그중에서도 특히 선진시대의 유가 경전이 중심이 된 것이다.

변려문은 동한 말엽에 발생하여 위·진을 거쳐 남북조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변려문의 특징은 먼저 매 구마다 4자 또는 6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장이 전체적으로 대구(對句)를 이루고, 운율의 해화(諧和)에 힘쓰며, 문장을 화려하게 수식하고 전고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변려문은 문장 속에 어떤 의미를 담는 것보다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아름답고 공교로운 형식미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려문은 당나라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성행하였다. 특히 당대 귀족 중심의 유태주의 문학풍조에 힘입어 문장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실용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의 비판이 꾸준히 이어졌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유와 유종원이었다. 한유와 유종원은 형식만 중시하는 변려문에 반대하고 선진양한의 고문을 쓸 것을 주장하는, 이른바 고문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유와 유종원의 고문운동은 단순하게 한대 이전의 산문형식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라 바로 유가적 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대에 들어 한유와 유종원에 의하여 제창된 고문운동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선진시대 성현들이 문사를 빌려서 그들의 도를 남긴 것과 같이, 문장을 쓰는 것은 그 문사에 성현의 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재도지문(載道之文)의 추구이다. 또한 그 도는 바로 유가의 도인 것이다. 성현들의 말씀을 기록한 문사(文辭)는 재도지문의 실체이며, 자신들이 재도지문을 쓰기 위해서는 성현들의 말씀을 기록한 문사를 전범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유행하고 있는 화려한 수식과 공교로움을 추구하는 변려문으로서는 이를 수 없는 것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이러한 풍조를 배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송대에 들어서도 한동안 변려문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대우와 전고의 사용에 힘을 쓰고 아름다운 수사에 관심을 가졌던 서곤체(西崑體) 시와 병행하여 더욱 위세를 떨쳤다. 고문 창작이 다시 대두된 것은 송 인종의

8) 鄭珉, 『朝鮮 後期 古文論 研究』(亞細亞文化社, 1989), 15쪽.

경력(1041-1048) 무렵부터 구양수(歐陽脩)에 의해서이다. 송대 구양수 이후 중국의 산문은 고문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sup>9)</sup>

고려시대의 산문은 당나라 말기의 문학을 배우고 돌아온 건당유학생 문인들이 문학의 핵심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고려 초기의 문학은 만당의 기려(綺麗)하고 유태미주의적인 경향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외교적인 면에도 중국과의 사대외교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문장의 경향도 변려문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더구나 문장 면에서 과거의 실시는 고문보다는 변려문의 흥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하겠다.

고려 광종 9년(958)에 후주 사람인 쌍기(雙冀)의 건의로 처음 실시된 과거제도는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학이 흥기되었으며, 문신관료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거 시험의 답안을 작성하는 이른바 과문체(科文體)는 일반 문체와는 다른 형식 위주의 문장으로 화려한 수식과 정교한 대구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과문체의 흥성은 점차 안정기로 들어서면서 문인들 사이에서 변화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과거장의 기습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문장을 가르칠 수 있겠다”<sup>10)</sup>고 하였던 이윤보(李允甫)의 언급처럼 변려문에 대한 비판이 점차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문인들은 변려문과 과문(科文)에 힘쓰는 사람들을 조충전각(雕蟲篆刻)의 무리들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고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시중 김인준이 지은 <청연각기(淸讌閣記)>가 송나라 서공의 『고려도경』에 실려 있는데, 넉넉히 덕자(德者)의 말이 있다. 김문열(부식)의 <혜음원기(惠陰院記)>, <귀신사비문(歸信寺碑文)>, <각화사비문(覺華寺碑文)>과 최문숙<sup>11)</sup>(유청)의 <옥룡사비문(玉龍寺碑文)>은 모두 걸치레로 꾸미지 않고 스스로 일가를 이루고 있다.<sup>12)</sup>

익재 이제현은 문장에 덕을 담아야 하며, 걸치레로 꾸미거나 번거로운 문사를 피하고 간결하게 서술하며,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9) 金學主, 『中國文學史』(新雅社, 1992), 346쪽.

10) 崔滋, 『補閑集』 卷中. “李史官允甫, 學識精博, 詩文皆有根帶, 尙笑後學使字屬辭曰 洗盡場屋氣習, 然後文章可教也.”

11) 崔惟清(1095-1174)의 시호는 ‘文淑’으로 ‘文肅’은 잘못된 것이다.

12) 李齊賢, 『樸翁稗說』 後集二. “金侍中仁存, 淸讌閣記, 載於宋徐兢高麗圖經, 藹然有德者之言也. 金文烈惠陰院歸信覺華諸寺碑, 崔文肅玉龍寺碑, 不爲表襮, 自成一家. 金樞密富敞文殊院記, 金壯元君儒松廣寺碑, 亦可喜惜乎其有繁辭也.”

강조하고 있다.<sup>13)</sup> 그 가운데 김부식이 지은 <혜음원기>, <귀신사비문>, <각화사비문>을 열거하면서 겉치레로 꾸미지 않고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김부식의 위의 문장이 고문적 특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혜음원기> 이외의 나머지 두 작품은 전문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하게 상고할 수 없다. 하지만 익재가 김부식의 개인 저작에 대하여 고문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문장가인 창강 김택영은 김부식이 찬한 『삼국사기』의 글이 전아하여 김부식이 『구삼국사』의 글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했는데, 그가 쓴 <혜음사신장기>를 읽고는 『삼국사기』의 글이 그렇지 않음을 알았다고 한다.<sup>14)</sup> 이처럼 『삼국사기』의 문장은 당시에 유행하던 부화무실(浮華無實)한 문풍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전아한 고문의 풍을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열전」의 문장에 대한 평가가 가장 호의적인데, 그중에서도 <온달전>에 대해서 “『삼국사기』의 글은 능히 박고(樸古)하고 능히 풍후(豐厚)하며, 능히 소탕(疏宕)하여 살아 움직이는 기세가 있다. 「온달전」 같은 글은 『전국책』이나 『사기』 가운데 두더라도 거의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sup>15)</sup>라고 하여 중국의 『사기』, 『전국책』의 문장과 견주어도 뒤질 것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문장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오로지 육조를 배워서 번러문에 뛰어났다. 그런데 고려 중엽에 문열공 김부식이 특히 걸출하여, 그가 찬한 『삼국사기』는 풍후(豐厚)하고 박고(樸古)하여 넉넉히 서한의 풍이 있었다. 고려 말기 익재 이체현이 한유·구양수의 고문을 창도하였는데, 기사문에 더욱 뛰어났다.<sup>16)</sup>

창강은 김부식이 찬한 『삼국사기』가 풍후하고 박고하여 서한의 풍모가 넉넉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서한의 풍모란 바로 당대 한유와 유종원이 추구하였던 선진양한의 풍모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즉, 고문의 풍모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13) 金乾坤, 「李齊賢 文學研究: 詩와 古文을 中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4), 225쪽.

14) 金澤榮, 『韶濩堂文集』 卷8, 「雜言」 3. “余初金文烈三國史, 多仍三國本文, 故能風雅矣. 後讀其惠陰寺記, 見其與三國史同爲一手筆, 然後疑始破耳.”

15) 위의 책, 「答李明集論三國史校刊事書」. “三國史之文 能樸古, 能豐厚, 能疏宕, 有活動之氣, 如溫達一傳, 置之戰國策史記之中, 幾不可辨.”

16) 위의 책, 「雜言」. “吾邦之文, 三國高麗專學六朝, 文長於駢儷. 而高麗中世, 金文烈公特爲傑出, 其所撰三國史, 豐厚樸古, 綽有西漢之風. 其末世李益齋, 始唱韓歐古文, 尤長於記事.”

그러나 김부식 스스로 고문을 논한 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 그의 문학론을 알 수 있는 저작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남긴 몇몇 작품과 창강 같은 후대 비평가들의 언급을 참고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부식 당대의 고려 문단이 소동파(蘇東坡) 학습의 열풍이 불고 있었으며<sup>17)</sup>, 소동파가 당송고문가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김부식의 고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가 보건대 근세에 동파의 글이 한 시대에 크게 유행되어 학자라면 누구나 가슴에 담아 흥얼대지 않는 이가 있겠는가? 그러나 한갓 그의 글을 음미하였을 뿐이어서 가령 그를 모방하고 표절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의 풍골(風骨)을 얻은 자와는 어찌 멀지 않겠소.<sup>18)</sup>

위의 임춘의 언급을 볼 때, 당시 고려의 문단은 소동파의 문장과 시를 배우는 것이 유행을 넘어 문제화되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부식의 아버지 김근(金覲)은 당시 송에서 문명을 떨치고 있던 동파 삼부자의 위명을 듣고 자신의 네 아들 중 끝의 두 아들을 김부식과 김부철(1079-1136)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를 보아도 당시에 얼마나 소동파의 문학에 열광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김부식도 당송고문가들 중 송대의 대표적 고문가인 소동파의 문학을 추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김부식의 산문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2. 『삼국사기』 「열전」과 재조명의 필요성

김부식이 중심이 되어 찬술한 전들은 『삼국사기』라는 사서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사전(史傳)에 속하는 것이다. 사전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 비롯되었다. 『사기』에 실려 있는 인물전은 특정한 계층이나 계급의 인물을 입전한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왕에서부터 사상가·문인·협객·자객·농민에 이르기까지 각기 후대에 권계(勸戒)가 될 만한 사적을 지닌 인물이면

17) 金聖基, 「高麗 文人の 蘇東坡 受容 様相」, 『開新語文研究』 31(2010), 22-84쪽; 魚江石, 「牧隱 李穡의 蘇東坡 受容 様相」, 『語文研究』 40(2012), 419-422쪽.

18) 林椿, 『西河先生集』 卷4, 「書簡」, 〈與眉叟論東坡文書〉. “僕觀近世, 東坡之文大行於時, 學者誰不伏膺呻吟. 然徒翫其文而已, 就令有擗擗竄竊, 自得其風骨者, 不亦遠乎?”

가리지 않고 싣고 있다.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사관은 붓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건들을 기록한다’라고 했다. ‘사(史)’는 ‘사(使)’를 의미한다. 즉, 사관은 붓을 들고 임금의 좌우에 있으니, 임금이 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 ‘전(傳)’의 말뜻은 ‘전(轉)’이다. 다시 말해서 공자가 『춘추』에서 의도했던 뜻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은 실로 성인의 경서와 함께 읽을 만한 보조물이며, 또한 모든 기록된 사적들의 으뜸이라 할 수 있다.<sup>19)</sup>

이처럼 전의 기록은 공자가 『춘추』를 지은 대의와 같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전의 목적은 어떤 한 인물의 선악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함으로써 경계를 내리는 것으로, 성현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에서 충분히 예로 들지 못한 것들을 설명해주어 경전의 내용을 보충해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전하는 우리나라 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는 본기 28권, 연표 3권, 잡지 9권, 열전 10권 총 50권으로 편찬되어 있다. 이 중에서 열전은 기전체로 서술되어 있는데, 국왕을 보필한 관료나 특수한 개인, 반역자 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서 <김거칠부전>, <김후직전>, <온달전>, <백결선생전> 등 4편이 『여한십가문초』에 선발되어 있다. 『여한십가문초』를 편찬한 창강 김택영은 김부식의 대표적인 문장으로 이 작품들을 선발한 것이다. <김거칠부전>은 을지문덕·거도·이사부·김인문·김양·흑치상지·장보고·사다함 등과 함께 제4권에 실려 있다. 제4권에 실려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거나 영토를 넓히거나, 대전쟁 등에서 국가나 왕실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뽑아놓은 것이다. <김후직전>과 <온달전>은 을파소·늑진·밀우·박제상·귀산 등과 함께 제5권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어진 재상, 충성스런 신하, 충언을 한 직신(直臣), 생명을 바친 신하를 모아놓았다. 그리고 <백결선생전>은 향덕·성각·실해·물계자·검군·김생·솔거·효녀지은·설씨·도미 등과 함께 제8권에 실려 있는데, 각자의 뛰어난 특기를 발휘한 기인(奇人)에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모두 김부식의 저작으로 볼 수

19) 劉勰, 『文心雕龍』, 「史傳」, “曲禮曰, 史載筆. 史者使也. 執筆左右, 使之記也. [...] 傳者轉也. 轉受經旨, 以授於後, 實聖文之羽翮, 記籍之冠冕也.”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권말에 김영온(金永溫) 등 8명의 참고(參考)와 관구(管句) 정습명(鄭襲明) 등 모두 14명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이 중에서 김부식은 편수관으로 참여하였다. 책임자로서 김부식의 실제 역할은 논찬(論贊)과 지(志)의 서론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참고들이 자료를 수집한 후 편집한 것을 최후로 수정, 가필 또는 취사선택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열전」의 문예적 성과를 두고 김부식 개인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열전」 전체에 일관된 서술 방식과 문체 등을 고려할 때, 「열전」은 김부식의 작가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된 글로 평가하기도 한다.<sup>20)</sup>

하지만 김부식이 직접 창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강 김택영도 『구삼국사』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을 것이라는 혐의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혐의는 『삼국사기』를 읽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창강은 <혜음사신창기>를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사마천의 『사기』나 일연의 『삼국유사』와 같은 사서(史書)들은 온전히 개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같은 관찬 사서를 편수관의 개인 저작으로 인정하여 개인의 문학적 특성을 논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I. 『삼국사기』 「열전」의 서술상의 특징

#### 1. 유가덕목을 위한 의도된 서술

『삼국사기』 「열전」은 당연히 유가 중심의 사상적 기반으로 편찬되었다. 모든 피전자들은 유가적 사상의 핵심인 ‘효·제·충·신’에 따라 인물을 선별하였으며, 그 사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후대에 모범을 보이기 위한 집필을 하고 있다.

『삼국사기』 「열전」은 모두 50명이 입전되어 있다. 이들의 입전 내용을 분석하여 분류해보면 표1과 같다.

20) 강혜선, 앞의 논문, 183쪽.

표1-입전 내용별 분류

번호	편명	입전자	국가별	주요 입전 내용	분류
1	卷41	金庾信	新羅	金庾信의 先系와 出生, 成長過程, 三國統一과 죽음	忠
	卷42				
	卷43				
2	卷44	乙支文德	高句麗	살수대첩	忠
3		居柒夫	新羅	해랑법사에 대한 보은	信
4		居道	新羅	우시산국과 거칠산국 정벌	忠
5		異斯夫	新羅	우산국 정벌	忠
6		金仁問	新羅	삼국통일에 공을 세움	忠
7		金陽	新羅	신무왕의 옹립	信, 忠
8		黑齒常之	百濟	대당항쟁과 억울한 죽음	忠
9		張保臯와 鄭年	新羅	두 사람의 경쟁과 우정	信
10		斯多舍	新羅	가야 정벌	忠, 信
11		卷45	乙巴素	高句麗	인재등용과 선치
12	金后稷		新羅	임금에 대한 충성스런 간쟁	忠
13	祿眞		新羅	인재등용에 대한 충성스런 간쟁	忠
14	密友와 紐由		高句麗	목숨으로 나라를 구함	忠
15	明臨答夫		高句麗	한나라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막음	忠
16	昔于老		新羅	훌륭한 장수였으나 실언으로 죽음	忠
17	朴堤上		新羅	왜에 볼모가 된 왕의 아우를 구하고 죽음	忠
18	貴山		新羅	백제와 싸워 이기고 죽음	忠
19	溫達		高句麗	온달의 입신과 전장에서의 죽음	忠, 信
20	卷46	強首	新羅	문장으로 나라를 빛냄	忠
21		崔致遠	新羅	문장으로 당나라에서 이름을 떨쳐 신라를 빛냄	忠
22		薛聰	新羅	花王의 寓言으로 왕에게 간쟁함	忠
		附 崔承祐	新羅	唐의 과거에 급제하고 甄萱에 벼슬함	
		附 崔彥搗	新羅	唐의 과거에 급제하고 王建에 벼슬함	
		附 金大問	新羅	많은 저술이 남아 있음	
23	卷47	奚論	新羅	奚論과 아버지 讓德의 戰死	忠
24		素那	新羅	素那와 아버지 沈那의 勇맹함	忠
25		驟徒	新羅	취도 삼형제의 목숨을 바친 충절	忠
26		訥催	新羅	백제의 침공에 맞서 끝까지 항전하여 전사	忠
27		薛巖頭	新羅	신라 골품에 반대하여 당에 들어가 싸우다 죽음	忠
28		金令胤	新羅	아버지 盤屈처럼 적과 싸우다 죽음	忠
29		官昌	新羅	소년의 몸으로 거둬 나가 싸우다 죽음	忠
30		金歆運	新羅	적군을 맞아 싸우다 죽음	忠
31		裂起	新羅	戰功을 세우고 후일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음	忠
32		丕寧子	新羅	丕寧子の 戰死와 아들 舉眞, 從 合節의 殉職	忠, 孝

번호	편명	입전자	국가별	주요 입전 내용	분류
33	卷47	竹竹	新羅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죽음	忠
34		匹夫	新羅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죽음	忠
35		階伯	百濟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죽음	忠
36	卷48	向德	新羅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부모를 구원함	孝
37		聖覺	新羅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어머니를 봉양함	孝
38		實兮	新羅	왕의 버림에도 원망하지 않고 물러남	忠, 隱
39		勿稽子	新羅	왕의 버림에도 원망하지 않고 물러남	忠, 隱
40		百結先生	新羅	安貧樂道하며 살다	隱
41		劍君	新羅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죽음을 택함	義
42		金生	新羅	왕우군에 필적하는 서예 솜씨	藝
43		率居	新羅	새도 날아와 앉을 정도의 그림 솜씨	藝
44		知恩	新羅	몸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함	孝
45		薛氏女	新羅	아버지 대신 수자리 간 가실을 기다림	信, 節
46	都彌	百濟	절개를 지킴	節	
47	卷49	倉租利	高句麗	왕을 바로잡으려다 모의하여 폐위시킴	反逆
48		蓋蘇文	高句麗	왕을 죽이고 나라의 일을 마음대로 처리함	反逆
		附 男生	高句麗	당나라에 귀순하여 벼슬을 받음	
		附 獻誠	高句麗	당에서 공을 세웠으나 무고로 죽임을 당함	
49	卷50	弓裔	泰封	신이한 탄생과 성장, 반역과 죽음	反逆
50		甄萱	後百濟	후백제의 건국과 성쇠	反逆

표1의 입전자에 대한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임금에 대한 충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다음이 효행이며, 신의와 정절, 기이한 행적, 그리고 반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삼국시대의 정사(正史) 기록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효행보다는 충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삼국사기』 「열전」이 유가 중심의 사상을 바탕으로 서술되었음은 실제 서술 방향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물계자는 신라의 내해이사금 때 사람이다. 문벌은 높지 못했으나, 사람 된 품은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 젊었을 때 장한 뜻이 있었다. 이때 포상의 여덟 나라가 함께 모의하여 아라국을 치니, 아라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신라에게 구원을 청했다. 왕이 왕손 내음에게 가까운 고을과 6部の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했는데, 드디어 여덟 나라 군사를 패배시켰다. 이 전쟁에 물계자가 큰 공이 있었는데, 왕손에게 미움을 당했으므로 그 공이 기록되지 않았다. 어떤 이는 물계자에게 말했다. “그대의 공이 아주 컸음에도 기록되지 않으니 원망하는가?”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 “어찌 왕에게 알리지 않는가?” 물계자는 말했다. “공을 자랑하고 이름을 구하는 일은 지사는 하지 않네. 다만 뜻을 가다듬어 뒷날의 기회를 기다릴 뿐이네.” 그 후 3년 만에 골포, 칠포, 고사포 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갈화성을 공격하므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구원하고, 세 나라 군사를 크게 패배시켰다. 이 싸움에 물계자가 적군 수십 명을 목 베고 사로잡았는데, 공을 논할 적에는 또 얻은 것이 없었다. 이에 그 아내에게 말했다. “일찍이 듣건대, 신하 된 도리는 위태함을 보고는 목숨을 바치고 환란을 당해서는 자기 몸을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전일의 포상, 갈화의 전쟁은 위태하고도 환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목숨을 바치고 자기 몸을 잊어버림으로써 남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겠는가?” 마침내 머리를 풀어헤치고 거문고를 메고 사체산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았다.<sup>21)</sup>

이것은 신라 내해왕 때의 인물인 물계자의 열전이다. 이라국이 위기에 빠져 신라에 도움을 요청하자, 신라에서 왕손인 내음을 보내 돕게 하였다. 이때 물계자가 가장 큰 공을 세웠지만, 내음의 미움을 받아 논공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계자에게 불만이 없느냐고 하였으며, 그는 신하 된 도리로 원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 기회를 보자고 하였다. 그 후 다시 왕을 따라 출전하여 큰 공을 세웠으나, 또다시 논공에서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자 물계자는 자신의 부인에게 신하 된 도리로 나라가 위급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몸을 잊고 공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사람들 많은 곳에 다닐 수 없다고 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산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물계자 사적의 핵심은 나라가 위급할 때 나가서 목숨을 걸고 두 번씩이나 큰 공을 세웠으나, 그에 대한 보상이 없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내용에는 물계자의 불만을 의도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 도리어 물계자가 공을 세우고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마치 자신의 허물이라고 생각하여 산으로 들어갔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신하 된 자로서 국가나 임금에게 원망을 하거나 불만을 품는 것이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1) 『三國史記』卷48, 「列傳」8, 〈勿稽子〉. “勿稽子, 奈解尼師今時人也. 家世平微, 爲人僮僕, 少有壯志. 時八浦上國同謀伐阿羅國, 阿羅使來, 請救. 尼師今使王孫捺音, 率近郡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 是役也, 勿稽子有大功, 以見憎於王孫, 故不記其功. 或謂勿稽子曰“子之功莫大, 而不見錄, 怨乎?”曰“何怨之有?”或曰“盍聞之於王?”勿稽子曰“矜功求名, 志士所不爲也. 但當勵志, 以待後時而已.”後三年, 骨浦·柒浦·古史浦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 勿稽子斬獲數十餘級, 及其論功, 又無所得. 乃語其婦曰“嘗聞爲臣之道, 見危則致命, 臨難則忘身, 前日浦上竭火之役, 可謂危且難矣, 而不能以致命忘身, 聞於人, 將何面目以出市朝乎?”遂被髮携琴, 入師叢山, 不返.”

또한 장보고(張保臯)의 서술 방향에서도 이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 「열전」의 장보고조의 내용은 장보고와 정년(鄭年)이라는 두 사람의 우정과 신라가 어지러울 때 군사를 내어 안정시켰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것은 신라의 전기와 자못 다르다(此與新羅傳記頗異)”라고 부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전 신라에서 기록하였던 장보고의 내용과 많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신라인의 시각에 의한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일연의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얼마간 짐작할 수 있다.

제45대 신무대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왕은 협사 궁파에게 말했다. “내겐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가 있소. 그대가 나를 위해 그를 없애주면 내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대의 딸을 왕비로 삼겠소.” 궁파는 이를 허락하고, 마음과 힘을 같이하여 군사를 일으켜 서울에 쳐들어가서 그 일을 성공시켰다. 왕은 이미 왕위를 빼앗았으므로 궁파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 하니 여러 신하가 극력으로 간했다. “궁파는 미친한 사람이니 임금께서 그의 딸을 왕비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왕은 그 말을 따랐다. 그때 궁파는 청해진에 진을 지키고 있었다. 왕이 약속을 어긴 것을 원망하여 난을 일으키려 했다. 이때 장군 염장이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아뢰었다. “궁파가 장차 불충한 일을 하려 하오니 제가 이를 제거하겠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이를 허락했다. 염장은 왕의 명령을 받들고 청해진으로 가서 인도자를 통해 말했다. “나는 임금에게 조그만 원망이 있소. 그래서 당신에게 의탁하여 목과 목숨을 보전하려 합니다.” 궁파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너희들이 왕에게 간하여 나의 딸을 폐하게 해놓고 어찌 나를 보려고 하는가?” 염장은 다시 인도자를 통해 말했다. “그것은 여러 신하들이 간한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공은 혐의를 가지지 마십시오.” 궁파는 이 말을 듣고 청사에 불러들여 물었다. “그대가 무슨 일로 이곳에 왔소?” “왕에게 거스른 일이 있었으므로 공의 막하에 의탁하여 죽음을 면하려고 합니다.” “다행한 일이오.” 그래서 술잔을 나누며 매우 기뻐하던 차에 염장은 궁파의 긴 칼을 빼어 궁파를 베어 죽였다. 휘하의 군사들이 놀라서 모두 땅에 엎드렸다. 염장은 군사를 이끌고 서울로 가서 왕에게 부명하였다. “이미 궁파를 베어 죽였습니다.” 왕은 기뻐하여 그에게 상을 내리고, 아간의 벼슬을 주었다.<sup>22)</sup>

22) 『三國遺事』 卷2, 「神武大王閔長弓巴」. “第四十五, 神武大王潛邸時, 謂俠士弓巴曰 我有不同天之, 汝能爲我除之, 獲居大位, 則娶爾女爲妃. 弓巴許之, 協心同力, 舉兵犯京師, 能成其事. 既篡位, 欲以巴之女爲妃, 群臣極諫曰 巴側微, 上以其女爲妃則不可, 王從之. 時巴在清海鎮爲軍戍, 怨王之違言, 欲謀亂. 時將軍閔長聞之, 奏曰 巴將爲不忠, 小臣請除之. 王喜許之. 閔長承旨歸清海鎮, 見謁者通曰 僕有小怨於國君, 欲投明公, 以全身命. 巴聞之大怒曰 爾輩諫於王而廢我女, 胡顧見我乎. 長復通曰 是百官之所諫, 我不預謀, 明

이것은 일연이 쓴 『삼국유사』의 내용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장보고에 관한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집필되고 있다. 일연은 신무대왕이 장보고와의 약속을 어겼으며, 심지어 염장이라는 장수를 보내어 속임수로 그를 제거한 것을 소상하게 적고 있다. 이로써 본다면 신라에서 장보고는 신무왕에게 반기를 들어 제거된 반역자로 기록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삼국유사』의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의 내용과 이어지는 뒷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부식은 의도적으로 장보고가 신라에서 역적으로 제거된 부분까지 수록하지 않고, 정년이라는 인물과의 믿음과 우정, 그리고 왕을 도와 신라를 안정시킨 사적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집필 의도는 바로 ‘효제충신’의 유교적 덕목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부식은 장보고의 전기 후미에 ‘논왈’을 달아 서술 의도를 직접 밝혀놓고 있다.

이것은 신라의 전기와 자못 다르다. 두목의 말로 전기를 지었으므로 둘 다 여기에 적어둔다. 논평한다. 당나라 두목은 이렇게 말했다. “친보 때 안녹산의 난리에 삭방절도사 안사순은 안녹산의 종제이기 때문에 자살을 명하고, 궤분양에게 이를 대신하게 했는데, 그 후 열흘 만에 다시 이임회에게 명하여 병부를 가지고 가서 삭방 군사 절반을 나누어 받아 동쪽으로 조·위 지방으로 출정하게 했다. 안사순이 절도사로 있을 때에 궤분양과 이임회는 다 같이 아문도장으로 있으면서,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못해 비록 같은 소반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늘 서로 눈을 흘기고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후에 궤분양이 안사순을 대신하게 되자, 이임회는 도망가고 싶었으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조칙으로 이임회에게 명하여 궤분양의 군사 절반을 받아서 동쪽으로 출정하게 했던 것이다. 이임회는 들어와서 궤분양에게 청했다. ‘내가 한번 죽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처자만은 죽음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궤분양은 대청 아래로 빨리 내려가서 그의 손을 잡고 대청 위로 올라와서 마주앉아 말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 임금이 피난 간 이때에, 공이 아니면 동쪽을 정벌할 수 없는데, 어찌 사사로운 감정을 품을 시기이겠소.’ 그러고는 작별할 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충의로써 힘쓰도록 격려하여 마침내 큰 도적을 평정했으니, 이는 실로 두 분의 힘이었다. 그 마음이 배반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 재주가 일을 맡길 만한 것을 알아야만, 의심하지 않고 군사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평소부터 분노를 쌓았으니, 그 마음을 알아줌이 어렵고, 성내면 반드시 그 단점만

---

公無嫌也。巴聞之，引入廳事，謂曰 卿以何事來此。長曰 有於王，欲投幕下，而免害爾。巴曰 幸矣。置酒歡甚，長取巴之長劍斬之，麾下軍士，驚皆伏地。長引至京師復命曰 已斬弓巴矣。上喜賞之，賜爵阿干。”

보일 것이니, 그 재주를 알아준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이 점은 장보고가 곽분양의 현명과 같은 것이다. 정년이 장보고에게 의탁할 때 반드시 이렇게 여겼을 것이다. ‘그는 귀하고 나는 천하니, 내가 몸을 낮추면 그가 옛날 원한으로써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장보고는 과연 정년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사람의 떳떳한 정이고, 이임회가 곽분양에게 죽음을 청한 것도 사람의 떳떳한 정이다. 장보고가 정년에게 일을 맡긴 것은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으며, 정년은 또한 굶주리고 추웠으므로 쉽사리 감동되었겠으나, 곽분양은 이임회와 평소부터 대립해 있었으며, 이임회에게 군사를 나눠주는 명령은 천자에게서 나왔으니, 장보고에게 비교하면 곽분양이 나은 편이다. 이는 곧 성현이 성공과 실패를 망설이는 즈음인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의의 마음과 잡된 마음이 함께 있었는데, 잡된 마음이 이기면 인의가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인의가 이기면 잡된 마음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다. 저 장보고와 곽분양 두 사람은 인의의 마음이 이미 잡된 마음을 이겨냈고, 또 명철로써 뒷받침한 까닭으로 마침내 성공했던 것이다.<sup>23)</sup>

김부식은 두목(杜牧)의 말로 장보고의 전기를 지었음을 밝히면서, 곽분양과 이임회의 관계를 인용하고 있다. 평소 같은 상에서 밥을 먹더라도 서로 눈을 흘기며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지만, 나라에 위기가 닥치자 이를 모두 잊고 합심하여 큰일을 이루었던 곽분양과 이임회의 이야기를 장보고와 정년의 관계와 대비하여 서술하였음을 말하였다. 즉, ‘인의의 마음과 잡된 마음이 함께 있었는데, 잡된 마음이 이기면 인의가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인의가 이기면 잡된 마음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언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의(仁義)의 마음으로 선공후사(先公後私)를 함으로써 국가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보이기 위해 장보고의 전기를 서술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부식은 『삼국사기』 「열전」을 서술하면서 유가적 덕목인 ‘효제 충신을 부각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중에

23) 『三國史記』 卷44, 「列傳」 4, 〈張保臯〉. “此與新羅傳記頗異, 以杜牧立傳, 故兩存之. 論曰 杜牧言 “天寶安祿山亂, 朔方節度使安思順, 以祿山從弟賜死, 詔郭汾陽代之. 後旬日, 復詔李臨淮, 持節朔方半兵, 東出趙·魏. 當思順時, 汾陽·臨淮俱爲牙門都將, 二人不相能, 雖同盤飲食, 常睚相視, 不交一言. 及汾陽代思順, 臨淮欲亡去, 計未決, 詔臨淮, 分汾陽半兵東討. 臨淮入請曰 “一死固甘, 乞免妻子.” 汾陽趨下, 持手上堂, 偶坐曰 “今國亂主遷, 非公不能東伐, 豈懷私忿時耶.” 及別, 執手泣涕, 相勉以忠義, 訖平巨盜, 實二公之力. 知其心不叛, 知其材可任, 然後, 心不疑, 兵可分. 平生積憤, 知其心, 難也. 忿必見短, 知其材, 益難也. 此保臯與汾陽之賢等耳. 年投保臯, 必曰 “彼貴我賤, 我降下之, 不宜以舊忿殺我.” 保臯果不殺, 人之常情也. 臨淮請死於汾陽, 亦人之常情也. 保臯任年事, 出於己. 年且饑寒, 易爲感動. 汾陽·臨淮平生抗立, 臨淮之命, 出於天子, 擢於保臯, 汾陽爲優, 此乃聖賢遲疑成敗之際也. 彼無他也, 仁義之心, 與雜情並植, 雜情勝則仁義滅, 仁義勝則雜情消. 彼二人, 仁義之心既勝, 復資之以明, 故卒成功.”

서도 ‘충(忠)’에 대한 덕목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적을 선별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범엽의 『후한서』나 송기의 『당서』에 모두 열전이 있기는 하나, 국내의 일은 자상하게 다루고 국외의 일은 허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갖추어 신지 아니하였고, 또 이른바 『고기』는 문자가 너무도 즐하고 사적도 빠진 것이 많은 까닭으로, 군왕의 선악과 신자의 충사(忠邪)와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치란을 모두 들추어내어 권계를 삼을 수 없으니, 마땅히 삼장(三長)의 인재를 구하여 일가의 역사를 이루어서 만세에 물려주어, 일성(日星)과 같이 빛나게 해야 하겠다.<sup>24)</sup>

이것은 『삼국사기』 편찬을 명한 고려 인종의 언급이다. 『삼국사기』 편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도와 방향은 중국에서 편찬된 『후한서』, 『당서』와 같은 형태의 관찬역사서의 편찬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관찬 사서들은 모두 유교적 덕목을 기본으로 편찬된 것이다. 군왕의 선악과 신자의 충사와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치란을 밝혀 후대에 권계를 삼을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는 김부식의 개인적인 의도와 역량으로 편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교적 통치이념을 굳건하게 하고, 효제충신의 덕목을 표창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삼국사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의 저작으로 보아야 합당할 것이다.

## 2. 전범 문장의 인용과 변용

『삼국사기』 「열전」 서술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중국 사서의 서술을 전재(轉載)하여 인용하거나 요약하여 참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마천의 『사기』 「열전」의 서술 방식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구도가 그러한 것이고, 개별적인 인물의 사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서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을 이미 작성된 인물들의 전을 참고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신당서』이다. 『신당서』는 송기(宋祁)가 중심이 되어 찬술한 것으로, 권220, 「열전」 145에 〈동이전〉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24) 金富軾, 〈進三國史記表〉. “故范曄漢書, 宋祁唐書, 皆有列傳, 而詳內略外, 不以具載. 又其古記文字蕪拙, 事迹闕亡, 是以君后之善惡, 臣子之忠邪, 邦業之安危, 人民之理亂, 皆不得發露, 以垂勸戒, 宜得三長之才, 克成一家之史, 貽之萬世, 炳若日星.”



고구려 부분 중에는 ‘개소문’의 기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 부분에는 ‘장보고’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신당서』의 내용과 『삼국사기』의 기사 내용이 동일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장보고전>의 경우에는 후미에 붙어 있는 ‘찬왈’ 부분까지 그대로 전제하고 있다.

張保臯[『羅紀』作弓福.]·鄭年[年或作連.], 皆新羅人, 但不知鄉邑父祖. 皆善鬪戰, 年復能沒海底, 行五十里不噓, 角其勇壯, 保臯差不及也, 年以兄呼保臯. 保臯以齒, 年以藝, 常齟齬不相下. 二人如唐, 爲武寧軍小將, 騎而用槍, 無能敵者. 後, 保臯還國, 謁大王曰“遍中國, 以吾人爲奴婢, 願得鎮清海, 使賊不得掠人西去.” 清海, 新羅海路之要, 今謂之莞島. 大王與保臯萬人, 此後, 海上無鬻鄉人者. 保臯既貴, 年去職饑寒, 在泗之漣水縣. 一日, 言於戍將馮元規曰“我欲東歸, 乞食於張保臯.” 元規曰“若與保臯所負如何, 奈何去取死其手?” 年曰“饑寒死, 不如兵死快, 況死故鄉耶.” 遂去謁保臯, 飲之極歡. 飲未卒, 聞王弑國亂無主, 保臯分兵五千人與年, 持年手泣曰“非子不能平禍難.” 年入國, 誅叛者立王, 王召保臯爲相, 以年代守清海.[此與新羅傳記頗異, 以杜牧立傳, 故兩存之.]

論曰 杜牧言“天寶安祿山亂, 朔方節度使安思順, 以祿山從弟賜死, 詔郭汾陽代之. 後旬日, 復詔李臨淮, 持節分朔方半兵, 東出趙·魏. 當思順時, 汾陽·臨淮俱爲牙門都將, 二人不相能, 雖同盤飲食, 常睇相視, 不交一言. 及汾陽代思順, 臨淮欲亡去, 計未決, 詔臨淮, 分汾陽半兵東討. 臨淮入請曰‘一死固甘, 乞免妻子.’ 汾陽趨下, 持手上堂, 偶坐曰‘今國亂主遷, 非公不能東伐, 豈懷私忿時耶.’ 及別, 執手泣涕, 相勉以忠義, 訖平巨盜, 實二公之力. 知其心不叛, 知其材可任, 然後, 心不疑, 兵可分. 平生積憤, 知其心, 難也. 忿必見短, 知其材, 益難也. 此保臯與汾陽之賢等耳. 年投保臯, 必曰‘彼貴我賤, 我降下之, 不宜以舊忿殺我.’ 保臯果不殺, 人之常情也. 臨淮請死於汾陽, 亦人之常情也. 保臯任年事, 出於己. 年且饑寒, 易爲感動. 汾陽·臨淮平生抗立, 臨淮之命, 出於天子, 擢於保臯, 汾陽爲優, 此乃聖賢遲疑成敗之際也. 彼無他也, 仁義之心, 與雜情並植, 雜情勝則仁義滅, 仁義勝則雜情消. 彼二人, 仁義之心既勝, 復資之以明, 故卒成功. 世稱周·召爲百代之師, 周公擁孺子, 而召公疑之. 以周公之聖·召公之賢, 少事文王, 老佐武王, 能平天下, 周公之心, 召公且不知之. 苟有仁義之心, 不資以明, 雖召公尙爾, 況其下哉. 語曰‘國有一人, 其國不亡.’ 夫亡國, 非無人也, 丁其亡時, 賢人不用. 苟能用之, 一人足矣.” 宋朱祁曰“嗟乎, 不以怨毒相甚, 而先國家之憂, 晉有祁奚, 唐有汾陽, 保臯, 孰謂夷無人哉.”<sup>25)</sup>

有張保臯, 鄭年者, 皆善鬪戰, 工用槍. 年復能沒海, 履其地五十裏不噓, 角其勇健, 保臯不及也. 年以兄呼保臯, 保臯以齒, 年以藝, 常不相下. 自其國皆來爲武甯軍小將. 後保臯歸新羅, 謁其王曰“遍中國以新羅人爲奴婢, 願得鎮清海, 使賊不得掠人西

25) 『三國史記』 卷44, 「列傳」 4, 〈張保臯〉.

去。”青海，海路之要也。王與保皋萬人守之。自大和後，海上無鬻新羅人者。保皋既貴於其國，年饑寒客漣水，一日謂戍主馮元規曰“我欲東歸，乞食於張保皋。”元規曰“若與保皋所負何如？奈何取死其手？”年曰“饑寒死，不如兵死快，況死故鄉邪！”年遂去。至，謁保皋，飲之極歡。飲未卒，聞大臣殺其王，國亂無主。保皋分兵五千人與年，持年泣曰“非子不能平禍難。”年至其國，誅反者，立王以報。王遂召保皋爲相，以年代守青海。會昌後，朝貢不復至。

贊曰 杜牧稱“安思順爲朔方節度時，郭汾陽，李臨淮俱爲牙門都將，二人不相能，雖同盤飲食，常睨相視，不交一言。及汾陽代思順，臨淮欲亡去，計未決。旬日，詔臨淮分汾陽半兵東出趙，魏，臨淮入請曰‘一死固甘，乞免妻子。’汾陽趨下，持手上堂，曰‘今國亂主遷，非公不能東伐，豈懷私忿時邪？’及別，執手泣涕，相勉以忠義，訖平劇盜，實二公之力。知其心不叛，知其心，難也。忿必見短，知其材，益難也。此保皋與汾陽之賢等耳。年投保皋必曰‘彼貴我賤，我降下之，不宜以舊忿殺我。’保皋果不殺，人之常情也。臨淮請死於汾陽，亦人之常情也。保皋任年，事出於己，年且寒饑，易爲感動。汾陽，臨淮，平生亢立，臨淮之命，出於天子。權於保皋，汾陽爲優。此乃聖賢遲疑成敗之際也。世稱周，邵爲百代之師，周公擁孺子而邵公疑之，以周公之聖，邵公之賢，少事文王，老佐武王，能平天下，周公之心，邵公且不知之。苟有仁義之心，不資以明，雖邵公尚爾，況其下哉！”嗟乎，不以怨毒相禦，而先國家之憂，晉有祁奚，唐有汾陽，保皋，孰謂夷無人哉！<sup>26)</sup>

앞의 인용은 『삼국사기』의 <장보고전>이고, 뒤의 인용은 『신당서』의 <동이전>에 수록된 장보고의 기록이다.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서로 다른 내용이며, 밑줄을 그은 것은 글자의 출입이나 변개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2개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인명이나 지명 등에 달아놓은 주석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외 각국을 지칭하는 용어나 왕을 지칭하는 부분 등을 제외하면 동일한 문장이다. 즉, 『삼국사기』의 내용은 『신당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여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소문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당서』에 수록된 <개소문>의 기사가 『삼국사기』의 기사보다 훨씬 자세하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내용은 『신당서』의 내용을 좀 더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신당서』의 내용 그대로 충실하게 요약하고 있다.

蓋蘇文[或云蓋金]，姓泉氏。自云生水中，以惑衆。儀表雄偉，意氣豪逸。其父東部[或云西部]大人對盧死，蓋蘇文當嗣，而國人以性忍暴，惡之不得立。蘇文頓首謝衆，請攝職，如有不可，雖廢無悔。衆哀之，遂許。嗣位而凶殘不道，諸大人與王，密議

26) 『新唐書』 卷220, 「列傳」 145, 〈東夷傳〉.

欲誅，事洩。蘇文悉集部兵，若將校閱者，并盛陳酒饌於城南，召諸大臣共臨視。賓至，盡殺之，凡百餘人。馳入宮弑王，斷爲數段，棄之溝中。立王弟之子臧爲王，自爲莫離支，其官如唐兵部尚書兼中書令職也。於是，號令遠近，專制國事，甚有威嚴。身佩五刀，左右莫敢仰視。每上下馬，常令貴人·武將伏地，而履之。出行，必布隊伍，前導者長呼，則人皆奔迸，不避坑谷，國人甚苦之。<sup>27)</sup>

有蓋蘇文者，或號蓋金，姓泉氏，自云生水中以惑衆。性忍暴。父爲東部大人，大對廬，死。蓋蘇文當嗣，國人惡之，不得立。頓首謝衆，請攝職，有不可，雖廢無悔。衆哀之，遂嗣位。殘凶不道，諸大臣與建武議誅之，蓋蘇文覺，悉召諸部，紿雲大閱兵，列饌具請大臣臨視，賓至盡殺之，凡百餘人。馳入宮殺建武，殘其屍投諸溝。更立建武弟之子藏爲王，自爲莫離支，專國，猶唐兵部尚書，中書令職云。貌魁秀，美須髯，冠服皆飾以金。佩五刀，左右莫敢仰視。使貴人伏諸地，踐以升馬。出入陳兵，長呼禁切，行人畏竄，至投坑殺。<sup>28)</sup>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사기』의 <개소문전>과 『신당서』의 개소문 부분은 거의 동일한 문장이다. 단지 『삼국사기』에는 ‘儀表雄偉，意氣豪逸’이라고 연개소문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더 있으며, ‘性忍暴’이라는 표현이 조금 뒷부분에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뒷부분은 『신당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삼국사기』의 <을지문덕전>이 『수서』의 <우중문전>과 <우문술전>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변개하여 수록하고 있음은 강혜선의 논문<sup>29)</sup>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삼국사기』 「열전」은 중국 사서의 내용을 참고하거나 전채하여 인용하고 있다. 특히 장보고와 같은 경우 신라에서의 기록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면서까지 『신당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삼국사기』의 서술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이에 맞추어 여러 문헌을 참고로 작성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관찬 사서에 수록된 「열전」의 경우는 대부분 그 내용을 새롭게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열전의 내용은 전대 인물의 사적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찬술하는 시점과 입전 인물과의 시간적 거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던 1145년(인종 23)과 장보고의 몰년인

27) 『三國史記』 卷49, 「列傳」 9, <蓋蘇文>.

28) 『新唐書』 卷220, 「列傳」 145, <東夷傳>.

29) 강혜선, 앞의 논문, 193-205쪽.

846년(문성왕 8)은 이미 300년의 시간적 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연개소문의 물년인 666년(보장왕 25)과는 500여 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열전의 내용은 새롭게 개인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되어 있는 기존의 전기 사실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려사』 「열전」의 인물사적이 대부분 『실록』의 줄기나 행장, 묘지명, 비명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 「열전」의 기록을 김부식 개인의 문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창강이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4개의 전을 『여한십가문초』에 김부식의 개인 문장으로 선발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창강의 개인적인 기호와 선발 기준에 의한 것이다. 조선시대 농암 김창협은 목은의 문장을 대가의 솜씨로 추대하였으며<sup>30)</sup>, 간이 최립도 목은의 문집을 보고 우리나라 문장은 당연히 목은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자손을 위해서 하필 한유나 유종원의 문장을 읽힐 필요 없이 『목은집』을 읽히는 것만으로 족하다<sup>31)</sup>고 할 만큼 목은 이색의 문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창강은 목은의 문장에 주소어록(註疏語錄)의 기습이 있다<sup>32)</sup>고 하여 『여한십가문초』에 항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여한십가문초』의 선발은 창강의 개인적인 기준에 의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삼국사기』와 같은 관찬 사서의 경우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관찬 사서들은 이미 작성된 개인의 사적을 수합하고 참고하여 편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학적 역량을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관찬 사서인 『고려사』에도 「열전」이 존재하지만, 이 「열전」의 문장을 ‘김종서(金宗瑞)’나 ‘정인지(鄭麟趾)’ 개인의 문장 특징을 밝히는 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

30) 金昌協, 『麗巖集』 卷34, 「雜識」〈外篇〉. “論文章於東國, 固難以一人斷爲冠首. 然文則當推牧隱爲大家, 詩則當揖翠爲絕調. 牧隱不獨文爲大家, 詩亦宏肆豪放, 氣像可觀, 不似奎報齷齪.”

31) 李德沔, 『竹窓閑話』. “簡易曰牧隱子孫文官繼出, 其遺風餘韻尙有存者, 雖後裔末葉, 血脈流通, 甚可異也. 近觀牧隱文集碑銘墓誌, 冠絕古今, 東國文章當以牧隱爲首, 爲子孫者, 何必費功於韓柳, 讀牧隱集可也.”

32) 金澤榮, 『韶濩堂文集』 卷8, 「雜言」. “而文多註疏語錄之氣, 自是至吾韓二百餘年, 有權陽村 金佔畢 崔簡易 申象村 李月沙諸家 而皆受病於牧隱.”

## IV.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시대의 문장가인 김부식이 찬한 『삼국사기』 소재 「열전」의 서술 특징을 살펴보았다. 『삼국사기』는 조선 후기의 고문가인 창강 김택영이 그의 『여한십가문초』에 김부식의 문장으로 「열전」의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김부식의 산문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었다.

고려 후기 대표적 문인인 익재 이재현은 김부식의 문장 중에서 〈혜음원기〉 등 세 개의 비문을 열거하고 고문적 특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창강이 『여한십가문초』에 「열전」의 내용을 수록하면서 『삼국사기』 「열전」을 김부식 개인의 저작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열전의 문장을 분석하여 김부식의 고문의식을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 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정사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가지는 내용상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 또한 고려 전기 산문의 서술 방법과 구성의 측면에서 문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삼국사기』 「열전」은 유가적 덕목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것에 치중하였지만 이와 같은 열전의 서술 방향은 사서(史書)들 대부분의 공통된 서술이며, 『삼국사기』 「열전」만의 특징이 아니다. 『삼국사기』의 체제가 『사기』를 모범으로 하는 중화의 기전체 역사 서술의 방법에 정확하게 맞추어 서술한 것임을 생각할 때, 고문 창작을 염두에 두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장보고전〉과 〈개소문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들 전은 김부식의 온전한 저작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장보고전〉은 새롭게 작성한 문장이 거의 없으니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국사기』 「열전」을 대상으로 고문적 특성을 논하거나, 김부식 문장을 연구하는 중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좀 더 진행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唐書』.

『新增東國輿地勝覽』.

金昌協, 『聳巖集』.

金澤榮, 『韶濩堂文集』.

李德洞, 『竹窓閑話』.

李齊賢, 『樸翁稗說』.

林椿, 『西河先生集』.

崔滋, 『補閑集』.

강혜선, 「『三國史記』, 列傳의 古文의 特性 연구」. 『돈암어문학』 15, 2002.

金乾坤, 「李齊賢 文學研究: 詩와 古문을 中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225쪽.

金都鍊, 「古文의 여러 概念과 展開」. 『中國學論叢』 5, 1989, 44쪽.

金聖基, 「高麗 文人の 蘇東坡 受容 樣相」. 『開新語文研究』 31, 2010, 22-84쪽.

\_\_\_\_\_, 「金富軾의 儒學思想과 詩世界」. 『韓國漢詩研究』 12, 2004.

金性彦, 「金富軾의 삶과 詩」. 『韓國漢詩作家研究』 1, 太學社, 1995. 87-92쪽.

金學主, 『中國文學史』. 新雅社, 1992, 312쪽.

卞鍾鉉, 「金富軾 漢詩 研究」. 『教育理論과 實踐』 13, 2004.

成範重, 「金富軾 故事의 詩의 變容과 傳承: 『東國四詠』 연구의 일환으로」. 『울산어문논집』 11, 1996.

成賢子, 「金富軾의 現實認識과 詩世界」. 『梨花語文論集』 4, 1981.

魚江石, 「牧隱 李穡의 蘇東坡 受容 樣相」. 『語文研究』 40, 2012, 419-422쪽.

劉鏞 著, 최동호 譯, 『文心雕龍』. 민음사, 1996.

李貞和, 「雷川詩에 나타난 金富軾의 文化의식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47, 2009.

李鍾文, 「『三國史記』 崔致遠 列傳에 投影된 金富軾의 意識의 몇 局面」. 『어문논집』 35, 1996.

임형택, 「『三國史記』 列傳의 文學성: 《金分信傳》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12, 1989.

鄭珉, 『朝鮮 後期 古文論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9, 15쪽.

정충권, 「『三國史記』 김유신조의 讀法과 脈絡」. 『韓國文學論叢』 52, 2009.

진재교, 「『三國史記』 列傳 분석의 한 視覺: 溫達傳의 경우」. 『韓國漢文學研究』 19, 1996.

陳必祥 著, 沈慶昊 譯,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1995.

## 국 문 요 약

김부식은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문인이다. 고려 후기 익재 이제현은 김부식의 <혜음원기> 등 세 개의 비문을 들어 고문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문장으로 일가를 이룬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 창강 김택영은 그가 편찬한 『여한십가문초』에 김부식의 문장으로 <혜음사 신창기>와 함께 『삼국사기』 소재 「열전」 네 개를 수록하면서 서한의 풍모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온달전>을 극찬함으로써, 김부식의 산문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었다.

『삼국사기』 「열전」은 유가적 덕목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것에 치중하였지만 이와 같은 열전의 서술 방향은 사서들 대부분의 공통된 서술이며, 『삼국사기』 「열전」만의 특징이 아니다. 『삼국사기』의 체제가 『사기』를 모범으로 하는 중화의 기전체 역사 서술의 방법에 정확하게 맞추어 서술한 것임을 생각할 때, 고문 창작을 염두에 두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장보고전>과 <개소문전>은 『신당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김부식의 온전한 저작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장보고전>은 새롭게 작성한 문장이 거의 없으니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국사기』 「열전」을 대상으로 김부식의 고문적 특성을 논하거나, 문장의 특성을 연구하는 중심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좀 더 진행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투고일 2012. 12. 20.

심사일 2013. 1. 30.

게재 확정일 2013. 2. 27.

주제어(keyword) 『삼국사기』(Samguksaki), 『삼국유사』(Samgukyusa), 김부식(Kim, Bu-sik), 열전(Biographies), 고문(Classical literate style), 장보고(Chang, Po-go), 연개소문(Yean, Gaesomoon)

